

Macromolecular Research의 월간 발행에 즈음하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10월 9일, KINTEX에서 개최된 2008년도 추계총회에서도 보고되었듯이 우리 학회의 영문학술지인 Macromolecular Research가 2009년 1월호부터 격월간(bimonthly)지에서 월간지(monthly)로 새롭게 회원 여러분들 곁으로 다가 가게 되었습니다. 월간 학술지 발행은, 1976년 폴리머(Polymer(Korea))지가 처음 출간되고, 1987년 고분자과학과 기술지 발행과, 1993년 영문지인 Korea Polymer Journal이 첫 호를 발간한 이래, 우리 학회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1993년 Korea Polymer Journal이란 이름으로 출발한 영문지는, 2002년 2월호부터 Macromolecular Research 라는 이름으로 제호가 바뀐 후, 해마다 발전을 거듭하여 국제적인 고분자 전문학술지, 적어도 아시아 지역 최고의 고분자 전문학술지로의 위상이 점차 제고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영문지는 Korea Polymer Journal에서 Macromolecular Research로의 제호 변경, Science Citation Index(SCI) 등재를 거쳐, off-line 투고 시스템에서 online 투고 시스템으로의 완전 전환 등 전, 현직 편집위원들의 노력으로 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 결과 SCI의 impact factor가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여 2007년에는 1.766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007년 발표된 각종 국제 학술지들의 impact factor를 보면, 우리 영문지의 위상을 알 수 있습니다. 몇 개의 학술지만 비교해 보면, 일본고분자학회의 Polymer Journal이 1.421, Polymer International이 1.557, Macromolecular Materials and Engineering이 1.368입니다. 물론, SCI에서 부여하는 impact factor가 학술지 수준과 직접 비례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학술지의 등급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영문지를 사랑해주시고 좋은 논문들을 투고하며, 영문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여 주신 회원들의 애정과 관심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동안의 Macromolecular Research에 대한 회원 여러분들의 애정 어린 협조와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Macromolecular Research의 발전과 더불어, 날로 증가되는 투고논문 현황(2008년도엔 250여편 예상)을 고려하고 논문투고에서 출판에 이르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내년도부터 매월발행 체제로 전환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범적으로 2007년도에는 7회 발간, 2008년도에는 8회 발간을 한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편집부위원장을 6명(2명의 출판부위원장 포함)으로 늘리고, 외국인 편집위원도 초빙함으로써 Macromolecular Research를 명실상부하게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편집위원회 차원의 노력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이는 그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Macromolecular Research에 더욱 뜨거운 애정을 가지시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부응하여 Macromolecular Research가 명실상부한 국제적 학술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편집위원들은 배전의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우리 영문지의 impact factor가 2009년에도 1.5 이상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편집위원들도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더욱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고 Macromolecular Research에 보다 우수한 논문들을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논문 작성시, Macromolecular Research 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보다 많이 인용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문지 편집위원회>